A Study on the Beauty Characteristics Expressed Jean Fashion

— Focusing on Counter-culture —

So Young Kim · Sook Hi Ya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96. 2. 9 접수)

Abstract

This study of counter-culture—the cultural background of the Jean Fashion of which express the consciousness and youthfulness of young—shows the various social, cultural developments and the direction of growth for the Jean industry.

Until now, the fashion trends flowed from the elite, upper-class minority to the general public; however, in the case of the Jean Fashion, it has spread inversely to the upper-class from the young people who have adopted the life-styles of the lower, middle-class, working people. With the emphasis on Jean Fashion's establishment through and within a counter-culture influences, the first chapter explores the counter-culture's background theory and how fashion has metamorphosed within the counter-culture. The second chapter explores the image of the jeans within the society of the youth and the general public. Finally in the fourth chapter, this study divides the images of Jean Fashion within the youth and the general population into classifications of Feminism, Eroticism, Dismantlement. Thus,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above stated theories have had great influence on the Jean Fashion Industry.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Jeans are the representative article of clothing of unisex appeal which is the core characteristic of Feminism. Feminism, which surfaced coincidentally with the emergence of jeans in the 1850s, took charge of expressing the freedoms and the wills of women.

2. Jeans, being the representative article of Eroticism, have firmly entrenched its image in the young people's wardrobe through mass media such as movies, music, and commercials.

3. In the 90s the tendencies of Defacement and Dismantlement of Jeans developed. In the Dismantlement tendencies of colors, the color blue foretells of the century's coming to an
end, and blue also expresses the superiority of spirit and intelligence which transcends materialism.

I. 서론

본 연구는 젊은이들의 새로운 의식과 젊음을 표현하기 위해 이용되었던 전폐선을 반문화생활의 성장이자 반문화적 성장으로 보고, 사회·문화적 요소와 함께 이들 미적 특성을 지니고 성장해 왔는지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다.

전폐선은 의복을 통해 자유와 해방감을 포함한 반문화적 이미지를 표현한다. 반문화란 기존의 문화와 가치에 기초를 둔 일반문화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전통적인 도덕의 몰락에 기인한 보편적 가치와의 무제한과로 나타났다. 전폐선의 대표적 색채상 볼루는 우울함과 비참함, 늘어지며 그것의 저항하는 운율과 슬픔이라는 양면의 감상의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전폐선은 현대 사회의 해체성향에서 소외감과 침착감을 받았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전통적인 규범에서의 돌바는 조정하였고, 의복을 통해 민주적 가치의 표현과 신께제, 인종차별, 엘리트주의에 없애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폐선이라는 복식의 한 무모를 함축하여 그 시대복식의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당시의 사회 및 사회문화가 어떻게 복식문화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작업복에서 출발한 전폐선은 청년문화와 대중문화 속에서 사회변천에 따라란 영향을 미쳤으며, 이런 영향력을 살펴본 전폐선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로 한정하여 그 시대의 사회문화의 연간시기 미적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미적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미래의 복식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생각되는 전폐선의 활용방안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첫째, 전폐선에 표현된 반문화성을 고찰하기 위해 반문화와 이어진 봉건적 배경과 그에 따라 형성되어온 반문화 배경에 관한 것을 살펴보았다. 둘째, 청년문화와 대중문화 속에서 형성된 전폐선의 이미지를 살펴보았다. 셋째, 전폐선에 영향을 준 반문화적 성향과 청년문화와 대중문화를 통해 성립된 미적 특성을 써 미니즘, 에로티시즘, 해체주의적 경향으로 분류해 보고, 복식 조형의 창조적 의미를 전폐선에서 찾고자 하였다.

II. 반문화 해설

우선 문화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 "문화는 대중들의 현재 삶의 목적이나 전이로부터 생겨난 것" 또 ""살아가 민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평생하는 모든 형식'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반문화는 전통적인 민·추의 개념과 그 노선이 다르지만 주체나 새로운 선택에 있어서 미학적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일반성과 역명상 그리고 비전통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반문화는 하위문화를 포함 수단으로 하여 광범위한 대중문화 현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중심과 선언의 거리가 형으로 나타난다. 일상생활에는 이런 반문화가 대중의 분명한 삶의 영향을 미치는 길임이 다. 이것은 영향이 미치고자 젊은이들의 반항에 성원이 되는 모습이 사주 보여지는데, 1800년부터 1859년에 걸쳐 여러가지 계획을 일으킨 유럽의 공화주의자들의 복장, 유목인족, 반식민지주의, 제3세계의 반란 등을 통한 젊은이들의 의복은 그들의 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1860년대부터 1890년대까지의 반문화 스타일로 주목받은 대통령과 그의 판남성상과 구성을 담긴 복식의 인양상을 연출하여 그 시대의 반복적, 반문화적 의상의 혁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표현하려고 해왔던 19세기 남성복이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 60년대 헬로문화는 전통적 가치관의 부정과 경상 사회에 대한 반문화적 체제이며, 헬로타임의 본질은 반항적이고 자연스러운 미에 대한 믿음이었다. 대량 생산된 의복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대고 의복(second hand style)의 착용은 대인에 대한 거부를 보여주고 있다. 전폐선과 반문화적 복장의 다른 모든 소지품들이 기존 계층의 물질적 지위상성을 조용히, 노동자나 프로레타리아의 의복으로 터틀넥(turtle neck)의 스웨터, 플루트등과 같이 일반화되어 있다.

히포폐선이 부유층에 흔히는 과정에서 젊은이들의
반문화적 메시지는 악화되고 그 이미지만이 갈바낸 더 자이너의 제품으로 옮겨졌다. 캐빈 클라인(Calvin Klien), 글로리아(Gloria), 반더bilt(Vanderbilt), 엠 생 로랑(Yves Saint Laurent) 등의 절대선에 블루진이 나타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1850년 라미아 스태하우스에 의해 등장한 전례선은 1900년 이후 산업화 불가 속에서 이전까지의 작업복이라는 인식으로부터 페어리, 이때부터 도시에서 사는 일반인들도 착용할 수 있는 평상복 개념의 전례선으로 바뀌게 되었다. 1950년대 중반기에는 데다수의 젊은이들이 이를 착용하였으며, 이것은 암흑하고 화면에 가득찬 60년대의 반항적인 이미지와 정치적 건체, 성별성과 악랄중독 등과 함께 반문화적한 성향이 되었다. 이처럼 여러가지 사회적 불평등을 반영하면서 다양 한 유형의 흐름을 이끌어온 전례선은 특히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기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난 수많은한 의복행동이었다. 1970년대 들어 디자이너진이 나타남에 따라 진의 초기 이미지를 바탕으로 지위와 브랜드의 차별화가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복식 아이디어도 잘 어울리는 트렌디한 의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III. 전례선의 상징

1. 청년문화의 상징

어느 시대에나 청년들이 형성한 문화가 존재하지만, 1960년대 젊은이들이 의해 출판한 신설문화를 기성세대 들은 청년문화(youth culture)라고 부른다. 청년문화는 엘리트 문화와 대중 문화의 갯지를 둔하는 대서시 작되었으며, 젊은이들은 고전이나 전의, 위인, 남녀간의 차별 따위를 타파하려는 노력을 했다.

젊은이들의 특성은 외관상 다양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료나 친구집단 속에서 놀라움 정도로 일치하는 스테레오 타입(stereotype)화 되어 있다. 젊은이들은 전례선은 유니폼처럼 착용하여 철음을 상징하였으며, 실용적인 특성이 가장 대중화된 개성적인 특성으로 되었다. 평균적으로 구경이 가하지 않고, 얼굴이 흔히 되지 않으며, 솔가가 풀어지고 머리 멘이 짧아도 군사한 변신으로 간주되는 전례선은 젊은이들의 문화적 상징의 경점을 이용되고 있다. 젊은 세대가 착용한 전례선에는 건강한 노동자의 삶과 그들의 생명한 삶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다[사진1]. 마샬 맥루한(Marshall McLuhan)은 “블루진은 기성세대에 대항하는 본능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젊은이들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한 반항을 나타내었다." 60년대 말 우드스톡 캐스테빙(Woodstock festival), 헤이와 빈전 운동 및 흑인 공민권 운동의 열기, 마루체어(Marcuse) 등의 문명 비판주의적 문화 혁명 본과 같은 혼란된 상황 속에서 70년대 중년 문화의 우상은 단연히 블루진 차림의 젊은이였다. 세벌드(H. Sebald)는 하위문화로서의 청년문화에 대해 “복잡성에 대한 성인과의 독립된 표준이 지켜지는 형상 이들이 청년 문화의 한 기능이며 생명 심리의 반향”이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헤이와들이 그들의 표현양식으로 블루진을 택하여 착용한 원인은 평등상상이며, 인식의 자유와 힘, 젊음의 욕구를 받지하는 블루진은 단순한 옷의 범주를 넘어 사회적 대중화된 문화적 상징의 존재가 되었다.

블루진은 코카 콜라, 라플리 엉으로 변형되는 미국의 상대문화의 하위이며, 낙서를 하거나 빌트의 표현으로 반항성을 표현하였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기 위해 또 타인과 구별되려고 상표를 바탕으로 내보여 착용하였다[사진 2].

전세계의 젊은이들, 특히 미국의 이데올로기를 전하음으로써 일치하지 않을 것들을 서양 민주국가의 극좌파나 공산당 지지자들은 나아가 젊은 집단에 거리게 되었던 젊은이들에게까지도 미국의 영향력이 전례선을 통해 불 람만을 미치고 있다." [사진 3]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 이 캐리포니아 전과 성향에서 착용을 얻은 정신은 이미 보편화되었고, 결국 의복은 이제 착용자의 성별을
과 같이 대중에게 어떠한 사실이나 사실을 전달하는 매개체를 말하며, 이러한 대중매체의 반달은 의복의 형태에 역할을 미쳤다. 
20세기 중반 이후 대량생산과 대중매체의 반달은 본격적인 기생복의 시대를 확립하였다.
대중문화와 응호론자인 사회학자 간스(Herbert J. Gans)는 대중문화와 개인으로 메스컬처(mass culture) 보다는 퍼플러 컬처(popular culture)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 대중문화란 대중에 의해 선호된 취향문화의 하나로써 고급문화와 동등한 중요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60년대 잡지의 중점을 가진 패드(fad)가 수년간 온 미국과 세계의 유행으로 전파된 것과, 보급된 원인과 배경은 대중문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중문화는 제일인과 끌어내려 완성된 문화가 혹은 극적이나 최고의 예술가나 작품이 있을 수 없으며, 우리를 반영하는 '완성형 가는 문화'이다. 대중문화 중 영화, 대중음악, 광고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인쇄 이론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 살펴보겠다.

1) 영화 속에 표현된 전
1920년대 발한 카우보이 영화들이 거의 대인 신장의 재킷을 입고 출연했던 미국의 주인 영화에서 전배선이 나타났으며, 시부 영화의 영웅들이었던 게이 캐릭터와 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것이다.

2. 대중 문화의 상징
대중문화란 신문, 잡지, 데클리티, 영화, 라디오 등


재현 등이 건강한 제구는 서부라는 거친 배경과 젊고 무서운 절치점사들 통해 남성미를 표현해 내었다.
50년대 영화에 출연한 젊은 변호사들 역시 영화판매
게 불루진에 대한 봉명의 이미지를 남겼다. 예를 들면
'와일드 원즈(The Wild Ones)(1954)'에서 가족과 불루진을 촉구한 복수자로 등장한 망스크 브람로[사진
4], 불루진을 촉구한 거친 남성미를 보여주었던 앨번
프레슬리[사진 5], '이유 없는 반항'(1955)에서 불루진을
촉구하고 본노와 슨قيم 되버린 고향의 문장 청소년
역을 한 제임스 덜을 통해 불루진은 반항과 본노의 상
점이 되었다14. [사진 6]은 94년도 잡지에 나타난 제스
(GUESS)의 광고로 제임스 덜과 밀은 모델을 이용해
50년대의 불루진의 이미지로 본노와 반항을 90년대에
맞게 재현함으로써 엽제 이미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누
렸다.
70년대에 들어와 전세계적으로 미국 유니(SDL 영화 '워
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통해 티셔츠와 불루진의 일부가
일어났고, 마저를 비롯한 셔츠, 조끼, 재킷 등의 다양
한 복장이 일상적으로서 위치를 구출하면서 전례선이
세동화되어 발전하였다.
2) 대중음악 속에 표현된 진
대중음악의 유행구조는 동대 현실의 진지성과는 거리
를 두고 있지만, 그 구조에는 가장 충격적이고 급진적
인 대중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의 새로운 변화를 만하
는 독특한 재현의 방향이 존재한다. 특히 대중음악의
자극효과는 계속해서 들을 수 있다는 독특한 재현의 동
을 가지므로 다른 대중문화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27,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음악문학의 위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독의 뿌리중 하나인 불루스는 노예해방 후 19세기
말, 남부에서 탄생한 음악으로 흑인들은 우울함(blues)
과 비참함으로부터 도피하면서 동체에 그것에 저항하
는, 즉 웅통과 송곳이라는 양면의 감정을 담은 불루스
라는 음악을 창조하였으며28, 불루진을 통해 그들의 감
정을 표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의 발전과 청소년층의 경
제권 참여는 상류층이나 엘리트층에 집중하였던 스타일
이나 상상성을 모방, 조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들 특
유의 청소년 문화를 탄생시켰다29. 1950년대 로큰롤은
반대의 반항과 비행 그리고 폭력과 관련된 음악이
라는 이미지를 확장적하게 심어주면서 전례선이 작별받이
 아닌 개주일 때레이스 떠밀었게 되었다[사진 7]. 50년
대 중반부터 60년대의 중심적 문화형태인 록 음악은 기
존의 음악에 반항하는 젊은층의 정신성에 대한 표현으
로서 젊은이들의 육구불안에 대한 정신적 고뇌의 소산이었다.
90년대 협합 패션에서 상품을 그대로 뿌린 채 자기
치수보다 훨씬 큰 붐부름을 엿거주춤 걷기로 노래하는
혹한 레바논에 의한 괴상적인 무대가 등장하였다[사진
8]. 여기에 미리 자기 해결이 커질 것을 예비해 닦힌
치수의 옷을 사 입어야 했던 고통 크리스탈 병이나
의미가 담겨 있다. 이것은 전통적 도덕의 유희에 기인
한 보편적 가치관의 무대를 배경으로 현대사회의 해체
가 젊은 세대에게 소외감과 좌절감을 낳게 하여 전통
적인 규범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
다.
3) 광고 속에 표현된 진
광고에는 양의성(兩義性)이 있다. 첫째, 광고는 상품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근원적으로 갖고 있으므로, 상
품정보에 대한 '선언의 기능'을 갖고 있는 '정체적 존재'
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광고는 그 시대의 사회적 이
미지를 편면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용의를 갖고 있
다. 이러한 광고는 의도적이긴 아니지만 그 사회
의 생각, 태도, 동기, 희망 그리고 가치를 다루기 때문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광고는 '공감소구의 기능'
을 갖고 있는 '사회적-문화적 존재'이다(50).
리바이스(Levis)는 여러 가지 주제의 광고로 대중들
의 시선을 끌어왔는데, '리바이스 501 플루스' 캠페인의
광고는 평범한 사람들이 리바이스 501 청바지를 입고
입하는 장면을 담은 것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등장시킨
개척자적 광고이다[사진 9].
여자들을 위한 진’이라는 컨셉트로 전개된 광고 시리즈는 20세기 추상포현주의의 거장 앙리 마티스(Matisse)의 화풍을 배려두어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필치로 화가의 작품을 대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사진 10, 10-1] 그리고 ‘여리여리 한다’는 주정과 함께 리마이스를 터번으로 쓴 모습, 발고배로 사용된 모습, 스모션수의 편리로 사용한 장면 등은 누구나 어떤 경우에도 입을 수 있다는 점이나 약간의 허구성을 가미하여 보는 이의 시선을 끌고 있다.

또 외국의 예술품들에 대한 화제적인 도용에 의해 전파되기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를 시험했다. 미셸라렌제로의 다비드 상이 채어진 괴물진을 입고 있는가 하면, ‘전직 경영자’를 모방해 볼거벗은 아담에게 하느님이 불우신 빈 발을 건너주는 특장적인 광고도 있다. 나머지 상관 없이 즐겨 입는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불우신은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전혀 허세가 없어서 어떤 세대도 거부감없이 입을 수 있는 의복이라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파격적인 테마를 담은 모노톤의 사전으로 제작된 게스의 광고는 기존의 페인팅 시장의 정통 대중적인 브랜드와는 달리 티켓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집중시킨 고가의 고급한 디자이너의 그의 과거의 고품질, 흥미로운, 놀라움, 흥미 있는 점점의 변화를 표현하고 드러나, 흥미를 뒤로, 놀라움을 앞으로 두 점의 현장을 표현, 그 강력함이 도발의 충동을 유도하고 있다.

캐리블루라인은 ‘미와 섹시(Beauty & Sexy)’를 주제로 접고 이를 광고로 표현하였는데 평범함 속에서 즐거움을 이어내려는 시도로 평가되며, 섹스를 주제로 상품 이미지를 이끌어 온 브랜드의 논리적인 이미지 구성 의지가 나타난다.

[사진 11]은 불우신을 입고 편하게 있는 사람의 영상 이를 매매로 두 사람이 기념하고 있는 광고사진이다.


[사진 12] United Colors of Benetton, 94/95 Fall Winter Catalog.
여기서는 샌의 구체적인 다양성들이 점차되어 이세의 추상적인 단편을 없애없는 역량과 양성성으로 나타내는, 또 [사진 12]은 허리에서 허벅지까지만 드리질
장군으로 이것은 신체적인 형태를 통해 강조하고자 했을 곳을 도장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예르티즘이를 표현하고 있
다.

또 전체분에 대한 찬소에도 뿐만 아니라, 각종 상품
의 찬소속에서도 이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사진 13]
은 데님 소재로 만든 부츠로 전체분에 대한 간결적인
신선 방식이며, [사진 14]는 코카콜라의 광고로 대중적
인 사람이 대중적인 광고를 마시는 것을 전개시, 처음
으로 알리고 있다. 이것은 ‘신=대중성’이라는 이미지
가 확고하게 굳어져가고 있는 증가이다.

IV. 전개선의 미적 특성

1. 페미니즘

페미니즘은 여성들의 외부 표현으로, 그 당시 사회
분위기에 의생하는 반사회적, 반문화적 의상과 통한 기
존문화의 대신 반항과 해방을 표현하였다. 페미니즘
은 전통적인 경계 즉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 저계급과 주변의 사이의 등을 무너
뜨려내며 관성을 기울어 왔다. 기존문화에 대한 반항과
해방을 표현하는 여성들의 의식과 조건 변화는 의상
을 통해 나타났다. 예전의 드레스는 ‘사물화된 여성’의 속
상으로만 이해되었으나, 이제 여성들은 여성다움을 예
상하는 음모로 위양려 여성 스스로 자신들을 예술가기
는 음모를 뒤로 의상 대신 경쾌함, 연성을 드러낸 것
을 의상으로 취용하게 되었다. 여성들의 블루진 착용은
1935년 Vogue의 표지 특집에서 처음 나타났으며, 2차
대전 중 여성들이 남성들의 영역이었던 산업활동에 참
여하게 됨에 따라 점차 블루진 착용이 확대되었다.

1960년대 미국패션은 여성해방과 성적개방이라는 두
이슈로 특정 지위될 수 있으며, 여성이 처해 있는 조건
이나 사회 전체에서 전체에 빠르게 중요한 반항을 일으
킨 유행은 미니스커트, 패티스타킹, 판타봉이었다.
1970년대의 페미니즘은 브레지어로부터의 해방과 여성
의 ‘성’을 부시한 기능적인 옷의 착용을 표현하였으
며, 여성들은 미니스커트 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테일
리드 수트를 모방한 스타일과 블루진, 그리고 두드림고
진 패츠를 선호하였다. 패츠가 사회적으로 공인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70년대 패츠 수트의 착용은 여성해방
의 큰 경사 중의 하나로 남녀노소, 나라, 시기를 불문
하고 의상에 의해 펼쳐졌다. 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친 블루진과 판타봉의 복잡적 인기는 성방동의 예시
지가 올랐었다. 블루진은 격식을 거부하며, 가정 경력
하게 승려한 패미니즘의 대표적 의상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던 분단선을 제거하는 데 기여하였다.

블루진의 탄생은 블로머(Bloomer) 여사가 여성해방
운동의 상징으로 대중을 거부하고 상징적 미방과 그 시기를 결
화한다. 이러한 블루진은 60년대 후반 반문화에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보다 표현적인 평등신념에 의
해 해체되어갔다. 오늘날 유니섹스의 대명사로 여겨지는데 블루 jean은 남녀 임동사상의 표현으로 신화된 외복이던 점에서 여성해방 운동의 결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에 헌터 뉴먼(Newman)의 의상발표에서 는 남녀가 특이한 비슷한 형태의 저지와 날로 꾸는 진조와 스포츠 코트, 점리, 스카프와 시즈 플라우스 차림 에 크라마트와 스카프를 장식한 복장으로 등장하여 화제를 모았다. 엉구리에 묻어 있던 저지가 마치의 일 으로 옮겨 온 것은 여성주의 건강한 사망의 의지와 성적 욕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예로부터 여성 해산에서는 "밖에 15"에서 같이 남성스타일을 입음으로써 악으로 여성동음을 표현하는 트랜스세스티 즐 (의상작가)의 데크나상을 많이 사용해 왔다.

주는 동시에 습격된 무도를 상징하거나 주의를 모으므로 성적 독립을 놓고 일으키려 한다. 블루 jean 이에 대해서 "복장을 성차 자체를 강하게 하려는 욕망 즉 성적 태도를 좀 더 용이하고 빈번하게 왜건시키려는 목적이 있으며 이에 유행은 성간대의 이동에 따라 변해온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유형은 성적인 장식과 과시를 문화적인 형식으로 확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형은 어떤 특수한 방식으로 성향이 전이된 것이다. 70년대 후반 대량생산 으로 인해 의복이 비가설화 되었고, 의복에 관한 사회 적 조작에 많아지게 따라 기존 의복에 대한 저항의 표현으로 여성들은 성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남성으로부터의 차별화를 주장하게 되었다. 해산에 있어서 여성의 신체를 강조한 에로티즘은 독특한 세시로 추천했 다. 성의 해방과 자유화하는 성애의 성격적인 개방이나 고양보다는 성의 상품화와 그에 대한 가득한 노동 중 속의 시각화, 영상화, 자극의 과일을 가져왔다.

1970년대의 에로터스에 대한 강한 조는 의복의 적합 성과 엔센스에 대한 상대적 부분성을 고수하면서 온 유니섹스와 비문화된 경향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앞의 단주여덟등의 성적 구분은 에로티즘을 갖춘 관용을 맺고 있다.

---


2. 에로티즘

모든 인간의 마음 근처에는 무의식적으로 성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의복에 대해서도 인간은 두가지 상반된 성리를 나타내는데 신체를 노출하고 과시하여 관심을 끌리는 것과, 나체를 가리키므로써 정숙성을 가능케 하

전파선에서의 성 혁명은 자유로운 성의 혁명이 물결 치던 60년대에 세계적인 운동 선수들이 온신전 홍보에 시 성시한 포스를 취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리고 70
년대에는 전파선의 성적 이미지가 그 상품의 성품 경
정짓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1972년, 미국 시장에 뛰어
든 브랜드의 몽வ숙이 문제의 느낌의 부드럽게 몰던
전파선을 들려오면서 텔레비전 방송에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홍보를 희비 소비자에게 강력한 성적 이미
지를 전달하였다. 특히 80년대 들어 새로운 브랜드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 시기에는 상품 문화로서의 에로
티즘을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렸다. [사진 16]은 묵기
모양의 바지 형태로 앞쪽의 치부를 뻗내듯 드리네보이
는 꺼조인 진마저를 입은 모습으로 에로틱을 표현하였
고, 숨내와 보이도록 불투명한 기능의 모습, 그리고
90년대에 접결하는 대담한 성적 이미지를 새롭게 표현한
캘빈 클라인[사진 17]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에
로틱한 메시지들이 선보였다. 전 생산업자들은 적극적
인 신청성의 내포된 메시지를 생산해 내면서 결국 전파
선에 있어 에로티즘이 대중들에게 가장 어필한다고 생
각하게 되었다.

앤 홀랜더(Anne Hollander)는 서구예술에서 수세
기 동안 끊임없이 변화하는 여성 주도의 시각적 개념이
20세기 중반 이후 퍼진으로 임해진 진의 이미지에 의해
최초로 형성되었고 주장하였다[사진 18]. 게스
(Guess)는 현대인이 갈증하고 있는 강렬한 에로티즘을
에 좋아하고 있다. 여성의 관념이나 가치기준으로 봐
는 성의 틀이, 도덕의 물리가 미끄러지는 장면도 과감
히 테마로 해체하고 있는데, 일례로 동성애, 소속층,
피아트와 같은 자극적인 테마를 포함하고 있다.

3. 해체주의

해체주의가 표명하는 이슈는 서구의 현존하는 히정상
학적 사용을 세계화하고 전제화하려는 일체의 시도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다. 해체주의는 인간
사회, 언어적 자가, 역사적 인물상, 그리고 문화적 진
신에 입각하여 총체의 히정상학적 체계에 대해 대단히
비평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해체와 퍼진의 관계를 예를 들어, 재킷 안감이 바
상 족히 있음이 수반이나 소매가 분리될 수 있음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해체된 조각들이 다시 옷의 전체성을
상상하게 하는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마치 이런 의사
구조의 문해적 복로와 남만적인 희생의 인물로 들어는
비판, 장 풍 고요에는 안과 밖 또는 속옷과 겉옷의 구분을 없앴다. 고타끼가 아름다운 무대
의상 등의 뜻에서 보어야 충격은 비밀스런 숲옷을 공식
직인 무대라는 외부로 드러날을 통해 기존의 문에 있어
언과 밖의 개념이 무너짐으로써 파생되었으며, 그 중
격은 양미적이었다. 또한 마지막에 의해 노출된 문의
구조적 빈곤은 외부의 완전한 존재성에 대해 우리가 갖는
기대감에 대해 일종의 복미적 해체 행위를 보여주었으나.

제작적으로 해체주의 배전의 성격은 외부의 구성적
규범에 대한 지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써 작이 갖는 또 다른 능력은 외부한 운용가 제공
되었다. 따라서 해체 배전은 외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과 분석에서 비롯된 현재의 결점 없는 요구들이 생
성시킨 존재적 스타일이다.

70년대 중반 이후 진패선이 하이패션에 영향을 미치
면서 다양한 폭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후 80년대와
90년대를 거쳐오면서 진패선은 색채와 소재의 다양화
를 통해 더 개성화 되었으며, 해체주의적 영향이 곳곳
에 표현되고 있다.

진패선의 대표적인 색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
는 색은 블루인데, 안크는 18세기에 프랑스 동부는 모
두 파라드 움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부터 범용
작업의 석세 하였다. 블루는 지상이나 정신성을 나
타내는 비판으로 향하는 색이다. 60년대 말부터 대두
되기 시작한 에너지 문화나 환경과 문화는 점점 더
약화되어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구의 주인이라는 지구의
식이 섬세게 되었고, 80년대 말부터 에밀로지 가발이나
아주이나 찰로 범용의 시각에서 벗어난 90년대를 예
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90년대 패션에 표현된 ‘블루’
라는 개념은 파괴되어가는 지구환경에서 벗어나 무한한
대우주에 대한 동정을 나타내는, 자아식사적인 색세라
고 할 수 있다. 블루는 역사적 인물에 가진 신분에
대한 고정관념의 타파를 상징한다는 점, 지상이나 정신
성은 나타내는 내면으로 향하는 석세하다는 점, 인간 주
체에 대한 비판을 표방하는 세기말적인 석세라는 점,
파괴되어가는 자연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예술로직적 정
향의 자아식사적 색세라는 점, 문명에 대한 도전으로
합리성과 보편적 질서에 대한 비판 속에 인간성 회복과
 자유와 자연스러움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해체주의적 정
향으로 볼 수 있다.

해체주의는 90년대 진패션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
는 것으로, 팽크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이미지가 그린
지역으로 이어지면서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1980년

울네어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도록 입고 다니기거나, 또는 그 위에 그립음을 그리거나 자기 치수보다 훨씬 큰 청바지를 얹어주어야 걷기까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통해 새로운 내각 기호를 해체적 요소로 표현하고 있다[사진 19]. 일반 '신세대'나 붙이는 이들의 행동 양식을 보며 우리는 흔히 집음, 자유, 개성과 롤플레이, 반항, 특권과 계층 등의 혼란스러운 어휘를 따올릴 수 있다. 이는 불안정한 이상 분할, 시대, 여성의 인권을 융합하는 사회 운동의 상징성을 지지 않고, 단지 '서구적', '양자적', '개인주의' 등의 수식어로 치명받히 빚어 있다.

이상과 같이 실례를 마치 1990년대 이후의 전례선은 대중들이 속에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요소들을 끌어모아 그룹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거론의 것에서 새로운 사상을 부여하는 작업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작업을 동시에 해치고 있다. 여기에 기존 인식에 비평을 가하는 새로운 해체주의적 요소가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세기말적인 여리가지 사상과 접목되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V. 결론

오늘날 본질론에 대한 대도와 개념은 세 세대의 의사와 조화를 이루면서 행동에 체인을 주지 않는 자유로움으로, 다양한 용도로 창조가 가능해진 의복으로 여겨진다. 1970년대 후기에 전반동의 거칠게 만든 색바른 신이 디자이너들과 의해 소개되었으며, 많은 의류 제조업체들이 새로운 "디자이너" 디자이너의 신을 생산함으로써 신이 하향선에 의존했다. 2009년에 들여와 현대에서는 민주주의의 상징, 설용성, 각색차별이 없는 전례선으로, 다른 치수에는 취향, 차별, 계급적 구분의 전통적 요구에 대한 제도임을 통해 전례선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복의 따위 자본, 경우에 맞게 제작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개념을 벗어나 전례선은 공식식상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이상에서 실례를 마치 같이 진전을 사회문화와 연관시키며 미학적 특성을 분류해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진례선은 해미니즘의 성격을 지닌 유휴식소의 대표적인 의복이다. 1850년대 청바지의 출현과 같은 시기에 나온 사상적 흐름의 하나인 해미니즘은 여성의 자율성과 의지를 보여주는 수단을 담당하였다. 진례선은 기존문화에 대한 반항과 해방의 표현으로 격식을 거부하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놓여있던 의복의 구분을 없애는데 기여하였다. 또, 진례선이 남녀평등 사상의 표현으로 입히고 성평등의 메시지를 통한 의복이라는 점에서 여성해방운동의 결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2. 전례선은 에로티즘의 대표적인 의복으로, 60년대 이후 청년문화와 대중스타들의 드라마와 영화, 음악, 패션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확립한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이때 전례선의 첫날 광고에서는 세시한 포즈를 취함으로써 에로티즘의 표현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이러한 성격 이미지를 통해 매력적인 현대인들의 강렬한 에로티즘에 대한 갈등을 해소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젊은 성의 타락, 동성애에, 가존, 파학대중과 같은 자극적인 에로티즘으로 변화가 있고 있다.

3. 90년대 이후의 전례선의 의복은 다시 재구성하고 구성된 의복의 해석을 요구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색채에서의 해석적 경향은 본래는 파악되어 가는 지구 환경에서 벗어나, 무한한 대우주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는 자아생활적인 색채로서 세기말을 해고하고 있다. 이적인 소재의 경향이나 창조는 진조재 특유의 거침고 강한 이미지와 부드러운 소재를 융화시켜 독특한 미를 이루어 있으며, 각색이 많아 나름대로하게 되거나 여기저기 흩어 흩어져 보이던 곳으로 드러나 보이도록 하는 해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전례선은 기존의 패션에 새로운 사상을 부여하는 작업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작업을 동시에 해치고 있으며, 여기에 새로운 해체주의적 요소가 포함되어 세기말적인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6) Elizabeth Wilson, 일의 책, p. 193.
11) Marc-Alain Descamps, 일의 책, p. 155.
22) E. Wilson, 일의 책, pp. 228-230.
23) William Gilohrist & Roberto Manzotti, 일의 책, pp. 56-76.